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CPI 예상 부합,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

- 미국증시 장 중 보험권 등락, 종가서 혼조 마감
- 7월 CPI 예상 수준 부합, 국채금리 단기물 하락
- AI 인프라 기업 실적 호조..기술주 강세

Summary

미국증시 보험권 혼조

현지시각 8월 12일 수요일 미국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세부 내용이나 절대 수치, 향후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았다는 해석 속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달려 가치도 오히려 상승하자 보험권에서 혼조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04% 하락한 53,770.2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6% 상승한 7,748.50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54% 상승한 26,588.49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74% 상승. 변동성 지수 VIX는 4.87% 하락.

(다우 -0.04%/ S&P500 +0.26%/ 나스닥 +0.54%/ 러셀2000 +0.61%)

소비자물가지수 '예상 부합', 그러나..

이날 시장의 이목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 공개에 쏠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상승했다고 밝힘. 이는 6월 기록했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3.5%에 비해 0.1%p 하락한 것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전월에 비해서는 0.1% 상승.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1년 전에 비해 2.5% 상승해 6월 수치 2.6% 대비 둔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

물가 상승세 완화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견인. 에너지 가격은 6월에 전달 대비 5.7% 하락한데 이어 7월에도 1.5% 하락했으며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동안 2.9% 하락. 주거비 상승세도 진정됐는데 7월 전달 대비 0.1% 상승을 기록. 식품 가격은 외식물가를 중심으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고 항공료가 2.2% 상승, 중고차/트럭 가격도 0.4% 상승.

이로써 미국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두 달째 하락. 다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는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 여기에 클리블랜드 연은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물가 지표긴 했지만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여전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7월 '중양값 CPI'는 전달 대비 0.3% 상승해 6월 0.2% 상승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16% 절사 평균 CPI'도 전달 대비 0.2% 상승해 6월 기록했던 보합에서 벗어났음. 클리블랜드 연은은 이 두 지표가 일부 품목의 급등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기초적 인플레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확인한 고용 시장 약화 조짐에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연준 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 논리 약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날 CME 페드워치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전일 4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하락함. 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멀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며 실제 이날 예상에 부합하는 물가 지표에도 국채금리는 단기물이 소폭 하락했을 뿐 중장기물은 오히려 소폭 상승, 달러도 강세를 보임.

AI 인프라 기업 실적 호조. 기술주 강세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루멘텀 홀딩스, 코어위브 등의 실적 이 호조를 보이며 급등했고 이 같은 흐름은 전체 AI 인프라 수요와 투자 성장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확신으로 이어져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상승을 견인. 특히 반도체주 상승세가 주도적으로 나타났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2.5% 상승.

호르무즈 여전히 안갯속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양측의 엇갈린 신호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 주목하는 것은 피로감을 더하는 일이긴 함. 다만 유가를 매개로 한 물가 등락과 그에 연동하는 연준 통화정책의 경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략의 방향에 대한 인지는 필요하다는 생각.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이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이란은 이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실제 선박 추적 데이터를 보면 이란 전 개시 전 하루 평균 130척 이상에 달하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최근 15척 미만으로 떨어져있다고 지적.

한편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PPI), 14일에는 미시간대 8월 소비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공개가 예정돼 있음.

특징종목

S&P500 내 섹터별로는 부동산(+1.07%), 정보 기술(+1.06%) 섹터 오름폭이 컸고 이외 유틸리티(+0.53%), 필수 소비재(+0.47%), 헬스케어(+0.23%) 등도 상승. 다만 재량 소비재(-1.40%), 소재(-1.19%), 통신 서비스(-0.94%) 섹터는 하락.

강력한 AI 인프라 투자 확인한 관련주 실적

전일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한 AI 서버, 데이터센터 인프라 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9.02%)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전분기 실적에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도 낙관적으로 제시돼 강세.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19.28%)도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회계연도 2

분기 매출과 이익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특히 조정 영업이익률이 5%를 기록해 시장 예상 2.7%를 크게 웃돈 것이 호재로 작용해 급등. 광학, 포토닉 제품 제조사 루멘텀 홀딩스(+13.63%) 역시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조정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강세. AI 인프라 업체 네비우스 그룹(+34.14%), 기대 이상의 전분기 매출과 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광전자 소자 제조업체 코히어런트(+8.24%)는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루멘텀 홀딩스(+13.63%)의 상승세에 힘입어 동반 강세. 마감 이후 발표한 코히어런트의 회계연도 2026년 4분기 실적은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현재 진행 분기 매출 가이드선도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 회사 CEO는 2026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매출과 상당한 마진 확대를 이뤘다며 고객 수요와 생산능력 확장이 예외적인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한 2027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추가 상승.

AI 반도체 동반 강세

이렇게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도와 속도 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AI 서버, 클라우드 등 관련 인프라 기업들의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드선은 결국 산업 전체 투자의 모멘텀이 아직 가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으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관련주 주가에 힘을 실음. 엔비디아(+3.0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92%), AMD(+1.81%), 인텔(+3.32%), 마벨 테크놀로지(+2.25%), 델 테크놀로지(+9.87%), 샌디스크(+5.76%), 아리스타 네트워크(+6.39%), 시게이트 홀딩스(+7.03%), 웨스턴 디지털(+3.69%), 램 리서치(+4.72%),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29%), KLA(+3.8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

종목별로는 델 테크놀로지스(+9.87%)가 골드만삭스가 막대한 AI 서버 수요와 탄탄한 분기 실적, 기업용 IT 하드웨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목표가를 기존 500달러에서 510달러로 상향하는 한편 매수 의견 재확인.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델의 목표주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500달러로 대폭 상향했던 바 있음. 델은 오는 9월 3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

인텔(+3.32%)은 2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은 강력한 자사 제품 수요에 대한 확신일 수 있다는뱅크오브아메리카의 평가와 함께 강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증자로 인한 주당 순이익(EPS) 희석은 5%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

SK하이닉스(ADR, +9.01%)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의 영향으로 전일 한국 증시에서 본주가 강하게 상승한데 이어(삼성전자 +7.05%, SK하이닉스 +6.14%) ADR도 강세.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3.03%)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최근 파트너들과 함께 발표한 5,000억 달러 규모 금융 플랫폼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하반기 루빈 제품 생산 확대 추이, 향후 매출 총이익률 흐름 등에 집중되고 있다며 기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85달러를 재확인. 한편 엔비디아는 워크스테이션용 그래픽카드 RTX 프로 6000 블랙웰 가격을 또 인상. RTX 프로 6000 블랙웰은 2025년 4월 판매 시작 즈음의 초기 소매가격 8,500달러대

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격이 87% 상승, 최근 두 달 사이에만 20.8% 추가 상승.

이외 AI 반도체 업체 세레브라스 시스템스(+11.63%)가 강력한 AI 수요에 힘입어 2분기 매출 성장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 다만 대규모 순손실이 부담으로 작용, 정규장에서 10% 이상 올랐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0% 내외 하락으로 돌아섬.

이외 특징주

빅테크에서는 아마존닷컴(-1.83%)이 단기 상승을 이끌 추가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하락.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이후 15% 급등했으나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구글 모회사 알파벳(-0.08%)은 신형 스마트폰 픽셀11 시리즈를 공개.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며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음.

스페이스X(+9.65%)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에 따른 숏커버 매수세가 유입, 주가 급등으로 이어짐. 지난주 34%에 달했던 스페이스X에 대한 공매도 비중은 이날 약 11% 수준으로 급감. 지난주 첫 보호예수 해제로 9억 1,100만 주가 거래 가능 물량에 포함되면서 유통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 공매도 비중이 희석된데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한 영향. 특히 최근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반등하자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가 더해져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이날 상승으로 IPO 공모가 135달러를 다시 회복. 다만 오는 20일 약 3억 1,900만 주를 비롯해 연말까지 추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는 점은 변동성 추가 확대 요인.

양자컴퓨팅 기업 쉐어포인트(+27.97%)는 상장 이후 처음 발표한 분기 실적이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등에 힘입어 기대 이상으로 집계돼 강세. 디웨이브 쉐어포인트(+2.52%)는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로부터 최대 30만 캐나다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세.

최근 상장한 전력 생산 기업 EROCK(+22.84%)은 AI 기업 엔트로픽과 대규모 전력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

지중해식 패스트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인 카바 그룹(+14.24%)도 실적이 기대 이상 수준에서 집계돼 강세. 패스트푸드 업체 웬디스 컴퍼니(+14.70%)는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의 트라이언 파트너스가 인수를 통한 비상장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

의류업체 겐(-3.39%)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뱅크오브아메리카, 제프리스 등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하향. 앞서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드 네이비 브랜드 매출 부진을 전망하며 29달러였던 목표주가를 26달러로 하향. 제프리스 역시 올드 네이비의 약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는 한편, 목표가 역시 29달러에서 23달러로 하향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1.27%)는 2027년 중반까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하드웨어와 발전, 에너지저장, 핵심광물 등에 총 2,500억 달러를 공급할 계획.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소강..유가 보합**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사태 악화의 움직임도 없어 이날 보합권에 머물렀음. 미국과 이란은 앞서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에 따라 오는 17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독일 DPA 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추가로 60일 혹은 90일까지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08% 상승한 83.27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0월물은 0.61% 하락, 배럴당 88.98달러를 기록.

금가격은 CPI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탄력적인 상승세를 재개, 장 중 온스당 4,500달러를 돌파하기도. 금값이 4,500 달러를 넘어선건 지난 6월 5일 이후 처음.

CPI 발표 이후 국채금리 혼조..단기물은 하락

미 국채금리는 단기물이 하락하고 장기물이 오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냄. 다만 오름 폭도 내림 폭도 제한적. 이날 시장 관심이 초반 집중됐던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공개됐고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도 다소 완화됐지만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인데다 여전히 연준 목표치 대비 높은 물가라는 시각은 금리 동결 쪽에 완전히 힘을 실지는 못함. 이에 국채 금리 등락 폭도 제한적.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1.3bp 하락한 4.2011%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4bp 상승한 4.6925%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도 1.7bp 상승, 5.2574%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일 40%대 후반 수준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낮췄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전장 60% 초반대에서 50% 중반대로 소폭 낮아짐.

물가 안도감에도 달러 강세

달러 가치는 상승. 장 초반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에 부합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관련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반영, 달러 가치는 반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15% 상승한 99.974를 기록.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증가에서 0.3원 하락한 1,415.7원을 기록, 나흘 연속 1,410원대에 머물렀던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5원)를 감안시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2.45원 상승한 1,417.5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